

社會의 病的 現象 (十一)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東亞文化的 滅亡

이러한 事實로 因하여 우리 東亞民族 뿐 아니라 人類 有史 以來의 社會發展 上에 初有한 結果가 生할 것입니다. 만일 現代 東亞社會 生活 發展의 一般 傾向이 持續된다 하면 그 明白한 結果는 우리 東亞의 文化가 人類 文化的 生活界에서 根絶이 될 것입니다. 아니 말서 우리 青年의 一般은 東亞의 文化를 輕蔑합니다. 輕蔑치 아니하라도 事實上 엇지할 수 업는 自然한 趨勢에 依하여 輕蔑하게 됩니다. 우리 教育의 全部가 要컨대 歐洲文化인즉 우리 東亞文化가 忘却되고 幽徑에 埋하게 될 것은 事實입니다. 漢文字의 學習이 困難하다 하여 日本에서 羅馬文字를 採用코자 하는 것도 我東亞文化의 滅亡하는 實例의 하나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我東亞文化가 滅亡이 되고 順應性이 銳敏한 我東亞民族의 心靈에 歐洲文化가 그 根趾를 깊히 두게 되면 (五千年以來로 生長한 文化가 滅亡하게 되는 터인즉 哀惜한 것은 勿論이나), 우리 民族의 將來에 對하여는 도리혀 有望하게 될는지도 몰읍니다. 그런데 우리 民族의 順應性이 銳敏하고 忍耐力이 强健한 것은 人類學 上에 確實한 事實입니다. 우리 人種은 極寒帶인 西伯利亞나 極熱帶인 南洋이나 水土가 相異한 南北美洲에서나 何處에서든지 他人種보다 容易하게 生活할 수 잇습니다. 外國서 留學하든 東亞人을 觀察하면 美國 留學生은 美國人이 되야 오고, 英國 留學生은 英人의 法國 留學生은 法人의 行習으로 歸家하게 되매 우리의 老父母는 換腸하얏다고 憂慮할 만큼 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民族의 固有性質이 社會生活을 形成함

그러나 如何히 銳敏한 順應性을 가진 東亞이라도 一便으로 그 新思潮의 流入되는 速度를 自己 神經組織의 順應速度로 當해낼 수 업슬 것 갓흐며, 他便으로는 五千年 以來로 習慣되얏든 自己 性質에 固有한 社會生活을 幾十年

間에 忽然히 면키 難할 것 같습니다. 以上에 指示함과 갓치 社會生活은 그 民族의 固有한 性質로부터 外發되야 一定한 形成을 得하든 同時에 그 民族 性質의 發展 形成은 그 固有한 社會生活의 影響으로 되는 것입니다. 具體的으로 例를 擧하면 古代 猶太民族은 그 性質이 強剛하야 意志的 生活을 主要하게 生覺하얏슴으로 宇宙까지를 天神의 意志的 命令으로 說明하얏스며, 그 社會生活의 規模와 法제도 天神의 意志로 命令된 것 가치 信奉하얏슴니다. 其後 猶太民族이 獨立的 國民生活을 失하고 世界 各國에 散在하야 幾多 世紀를 過하게 되얏스나, 오히려 그 固有한 社會生活을 일치 아니 하고 甚至於 中國南方(大部分은 雲南省)에 居住하는 猶太族까지라도 아즉 그 固有한 宗教的 社會生活을 維持한다 합니다. 또 古代 希臘民族의 例를 觀하야도 社會生活의 形成과 그 民族의 固有한 性質이 融和됨을 알 수 있습니다. 此民族의 原性은 尙理的 傾向이 만슴니다. 哲學과 自然科學이 發達된 것과 文藝에도 情을 智로 指揮하야 主理的 要素가 多함을 觀하든지, 傳來의 權威와 慣習의 專制를 無視하고 人類의 理性에 最高權威를 與하야 自由를 愛證하는 것을 觀하든지, 그 民族의 尙理的 特徵이 明白합니다. 그런 고로 『플라톤』의 理想的 國家制度는 全國民을 三階級으로 分類하야 生産階級, 國防階級과 統治階級으로 하고 國民生活도 理性的을 하야야 하겟스즉, 統治階級은 理性에 最高한 哲學者로 成立되야야 할 것이라 하얏슴니다. 如斯히 天意에 基本한 猶太族의 社會生活과 理性에 基本한 希臘人의 社會生活이 古代 羅馬族에 至하야 綜合된 後 現代 歐洲文明의 基礎가 되얏슴니다.